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봉화회 보현의 집 봉사팀

“남 위해 일하니 휴일이 더 즐겁죠”

“휴일이지만 우리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나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 식당은 평일과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거리에서 노숙하다 보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용자들도 휴일만큼은 여유 있고 나른하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오징어를 썰고 파를 다듬고 돼지고기를 볶는 등 재료준비와 요리하는 손길로 바쁘기만 하다. 보현의 집 식구들의 식사를 위해 한가로운 휴일도 반납한 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화회(회장 정옥진) 보현의 집 봉사팀'이다.

“그저 좋아요. 내 몸 건강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96년부터 보현의 집 주말 식사를 챙겨온 봉화회 봉사팀에서도 ‘말안

나’ 격인 배중순 보살(71)은 경기도 군포에서 영등포까지 쉬지 않고 달려 나오는 열혈 봉사자. 그런데 오히려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하며 수줍어한다. 배 보살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다는 동갑내기 김영택 보살(71)도 “나이 많다고 집안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봉사가 좋겠다”고 배 보살을 거른다.

여기에 또 다른 베테랑 봉사자 신기남(64) 보살도 있다. 신 보살은 영등포 보현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시립 아동병원과 경희의료원 목욕봉사에도 합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모습이 이용자들로부터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스마일 보살’이다.

봉화회 봉사팀 음식이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유독 따스한 맛으로 다가가는 까닭은 이렇게 보살들의 즐거움과 친절한 마음이 함께 버무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김강진 기자



영등포 보현의 집 식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모인 봉화회 봉사팀은 주말도 없이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 사진은 4월 23일 활동 모습.

PC·책·학용품 후원해 주세요

영등포 보현의 집이 노숙인들이 거쳐 가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보니 사람도 많고 필요한 물품도 많다. 봉화회 보살들은 “여기 식구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의지를 불

어 넣어 주기 위해 도서, 완구, 학용품, 컴퓨터 등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을 후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02)2069-1600

연꽃배지 달고 나눔 실천해요

본사-조계종 공동 ‘자비의 연꽃 달기운동’ 전개

“자비연꽃 달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요”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기금으로 설립된 ‘자비나눔기금’ 모연사업의 일환. 캠페인은 불자들의 자비나눔 실천을 통한 자긍심 고취,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연꽃 향기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자비연꽃배지는 1차 15만개(개당 1000원)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 모연은 ‘자비연꽃 달기’에 참여하는 방법과 정기법회를 ‘자비나눔’ 법회로 개최해 기도금중 10%를 자비나눔 성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조계종은 모법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한 사찰에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모금된 자비나눔기금은 국내외 재난구호 및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극빈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또 6월경 기



4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자비나눔을 위한 창작명상음악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조계사의 한 신도가 자비연꽃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금지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장 정년 스님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재난구호 및

극빈 소외계층을 위한 불교계 최초의 기금 마련을 위한 홍보 및 모연 사업”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

한 모든 불자들의 공동된 실천사업으로 승화되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5월 1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재해구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도와 주세요

난치병 앓는 두 살배기 송인한 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5월의 환우로 선정된 두 살배기 인한이(사진). 생후 3일부터 황달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인한이는 생후 5개월까지 황달증세를 보이다 세브란스병원 소아과로 부터 난치병인 ‘구상적혈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현재 인한이는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한이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며 버는 소득으로는 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

이후 계속 빈혈 검사와 수혈을 하고 있던 중 인한이의 발육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 다시 병원을 찾은 인

한이 부모는 2004년 10월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인한이가 황달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인한이는 일주일에 두 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한이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며 버는 소득으로는 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

아이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제대



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인한이 부모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 고

‘자비연꽃 달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본사와 조계종은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불교계 최초의 재난구호 및 극빈 소외계층을 위해 설립되는 ‘자비나눔 기금’ 모연 사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웃을 위해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비연꽃 달기’ 동참 안내

—불자 개인은 성심성의껏 기금을 내주시고, 자비연꽃배지 24K 금도감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찰 및 단체는 자비연꽃을 개당 1,000원에 보급합니다.

—모아진 ‘자비나눔 기금’은 재난구호 지원 및 활동,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자비연꽃 배포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내 ‘자비나눔 기금 운영위원회’
전화 02-2011-1820 / ARS 060-700-0482

조계종 총무원 ·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성공

박상환 - 10만원

총 누적금액 40,235,09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의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류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 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 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정당한 중헌 중벌을 거치지 않고 중정과 중회의장 총무원장을 행세해온 김상조(혜봉)와 송기욱(무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1205)에서 판결하여 피고 김상조는 대한불교 원효종 중정과 중회의장 피고 송기욱(무진)은 총무원장이 아닌(1차 판결 2004년 5월, 2차 판결 2005년 4월 1일 결심판결이 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미 본 종단에서 체탈도침되어 본 종단과는 무관함을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대한불교원효종의 전 중도 여러분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및 여타 각 종단스님 불자님들께서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9(2005)년 4월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최 덕 산
중 회의장 정 도 전
총무원장 김 고 산

제1319주년

원효성사 열반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화쟁통교(和諍通教)의 가치를 높이 들고 원융회통(圓融會通)의 한국적 불교를 창조하신 원효성사께서 육방(六方)에 입적(入寂)을 고(告)하신 지 올해로 13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성사(聖師)의 생애와 업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대재(大齋)를 아래와 같이 병행하여 향화(香火)를 사르고자 하오니 부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불기 2549(2005)년 5월 7일 (음 3월 29일) 오전 11시
- 장 소: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부산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 문의전화: (051)467-3316, 466-0977

불기 2549(2005)년 4월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최 덕 산
원로원장 송 구 산
중 회의장 정 도 전
총무원장 김 고 산